

### 올 원유 생산 안정기조 유지

올해의 원유 수급은 다소의 소비 회복과 함께 원유 생산도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원유수급동향을 분석한 결과 내수경기의 성장과 지방선거, 월드컵 특수 등에 힘입어 올해에는 1%내외의 소비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유생산도 전년 수준의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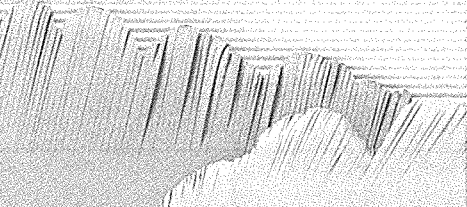
농림부는 우선 원유생산의 경우 유대인상, 사료가격인하 등 목장경영의 호재가 증산의욕을 부추겼지만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쿼터제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한 2백19만5천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년(2005년 12월 기준)에 비해 0.7% 감소한 2백22만9천톤, 착유우 두수는 4.0% 감소한 것이다. 또한 진흥회 농가기준 올해 수급은 생산의 경우 개별낙농가의 증산의욕은 강한편이었지만 폐업농가로부터 기준원유량을 인수해 증산하는 상황이어서 '03년 이후의 수급전망 기조가 지속돼 전년보다 1.7% 감소한 59만1천톤을 예상하고 있다.

계약공급량은 대부분의 참여유업체가 '05년도 소비부진에 따른 분유재고 채화 등을 이유로 계약량 축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소폭감소한 48만4천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원유 수급 동향을 보면, 원유투입량은 1백90만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색시유의 경우 끼워팔기도 감소하고, 가공시유의 대체음료 소비확대폭도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잉여량은 33만톤으로 전년에 비해 1.5% 감소했으며 분유재고는 9천5백5톤으로 2004년말에 비해 67.5% 증가했다. 분유재고 주요인은 기본가격 인상 이후 소비둔화와 국산분유 판매가격이 수입 분유에 비해 약 15% 높은데 기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 짧은 설 연휴 분유재고 걱정은 덜어

설 연휴 때마다 불거졌던 분유재고 급증 문제가 올해는 짧은 연휴로 무난히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원유수급 상황 역시 지난해보다 다소 호전돼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설은 29일 일요일로 총 유가공장 가동 중단기간이 3일에 그쳐 통상 방학기간에 걸친 긴 연휴로 어려움을 겪어온 유가공업계에 반가운 소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민형 한국유가공협회 과장은 "분유재고 수치는 아직 취합 전이라 확실히 진단하기 어렵지만 이번 설 연휴는 예년보다 여유로운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체에 따라 분유재고 물량 편차가 심하고 설 연휴를 예년보다 무난히 넘긴다 해도 방학기간 잉여물량 소진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등의 파제는 남아있다.



**낙농, 매달 57개 농장 문닫았다**

지난해 매달 57가구에 달하는 낙농가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낙농가가 수는 지난 2005년 12월 현재 8천9백23농가로 전년동기 대비 7.1%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1년간 모두 6백89호의 낙농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할 때 월평균 57.4가구가 낙농업을 중단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05년 12월 현재 3천5백57농가로 전년동기 대비 6.3%가 감소했으며 ▲강원은 4백12농가로 8.4% ▲충북은 5백80농가로 10.3% ▲충남은 1천5백24농가 7.2% ▲전북은 6백42농가는 6.9% ▲전남 6백73농가는 9.8% ▲경북은 9백98농가로 2.0% ▲경남은 6백29농가로 9.1% 농가수가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돼 충북과 전남지역의 낙농가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충북의 경우 감소율은 높았던 것은 진흥회 출범당시보다 쿼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전남의 경우는 영세 농가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때문으로 지적됐다.

**추억의 병우유 속속 '킴백'**

카톤 팩에 밀려 과거에 문혔던 병우유가 다시 출시됐다. 병우유가 팩우유의 틈새시장을 얼마나 공략하고 흰우유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킴백** 매일유업은 궁서체를 활용한 고전적 디자인을 내세운 '맛있는 비타우유'를 출시했다.

서울우유도 최근 투명한 병에 담긴 '목장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우유'를 시장에 선보였다. 서울우유측은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과거 병우유의 분위기를 냈다"며 "1000ml들이 제품의 경우 1950원에 판매 중이며 생산량은 많지 않고 가격도 일반 우유보다 높으나 반응은 괜찮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는 3월 용기 양산체제가 갖춰지는 대로 본격 생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우유는 팩에 담긴 것보다 풍미의 변형이 적어 맛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거 기술로는 밀봉상태가 불량하기 쉽거나 포장재 값이 비싸다는 등의 이유로 사라졌다. 병우유는 최근 유기농 우유 등 부가가치가 높은 우유제품에 등장한 바 있으며 국내 우유류 매출 선두 기업에서 출시된 것은 수 년만이다.

**축사신축 주민 반대로 '발목'**

축사신축을 추진 중인 지역마다 인근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어 제도개선 등의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포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 50-2일대 부지에 1만8천여평 규모로 건립을 추진 중인 김포한우영농조

합 송아지 생산기지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은 현재 공사 현장 인근에서 교대로 공사재개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이들은 축산단지가 마을 전체에 악취, 폐수, 병해충 등의 오염피해를 줄 것이라며 절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력 대응을 실시하고 조합 측도 주민을 상대로 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강원도 홍천의 경우 축사건립 문제로 장기간 한우농가와 지역주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홍천한우보존회는 지난해 9월 북방면 본궁리 지역에 1백두 규모 한우 시범목장 건립을 위한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받고 기초공사에 들어갔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 최근에는 굴지리, 장항리, 노일리 등 인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축사건립반대추진위원회 농가들은 시범목장 부지 근처에 천막을 설치하고 공사추진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곳 역시 현재 주민들이 농지전용 허가 취소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황이다. 각종 규제의 강화로 규모를 확장하려 해도 제도적 뒷받침이 없고, 비록 어렵게 허가를 받더라도 지역 주민의 반대라

는 벽을 넘어야 하는 2중 3중의 장애물이 버티고 있어 축산농가들은 쉽게 축사이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축산물은 민감품목

앞으로 진행될 한·미 FTA와 한·캐나다 FTA 체결이 국내 축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축산업계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유제품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서 만큼은 예외 인정을 받아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칠레와의 FTA 협정에서 민감 품목인 파수 분야에서 예외인정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한·캐나다 FTA 협정 시한이 오는 7월까지인 가운데 캐나다는 축산물 중 특히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캐나다는 한국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심지어 도축장까지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등의 공을 들이고 있어 캐나다와 매우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의 FTA 협정을 언급함에 따라 앞으로 미국과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 축산업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만약 최악의 경우 관세 철폐로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축산업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을 맞게 돼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도높게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인수공통전염병 접촉 주의를

가축질병 중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어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새로 창립된 대한인수공통전염병학회(회장 박승철)는 지난 1월 19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창립총회를 겸한 학술대회를 통해 인수공통전염병의 발생 상황과 대책 등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박기동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장은 인수공통전염병인 탄저병과 브루셀라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공수병(광견병), 일본 뇌염, BSE, 인플루엔자 등에 대해 각각의 발생상황과 관리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정석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세균과장은 소 브루셀라병이 우리나라에서 1955년 처음 발생한 이후 2000년 153건, 2004년 721건, 2005년 11월 현재 2천375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우에서의 발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오원섭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2002년 경기도 파주에서 멸균되지 않은 우유를 마시고 감염된 사례가 있으며 2003년 16명, 2004년 47명, 2005년 158명이 발생하는 등 증가 추세라고 설명하고 질병 감염축과 접촉이 빈번한 양축농가와 인공수정사, 수의사 등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방역·안전·친환경·브랜드' 축산정책 4대 핵심 키워드

농림부는 올 축산정책의 4대 키워드를 방역·안전·친환경·브랜드로 선정하고 이분야에 2천8백여억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올 축산정책을 △사전에 방 중심의 선진화된 가축 방역체계 구축 △농장에서 식탁까지 위생·안전성 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회복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 △고품질 우수브랜드를 축산정책의 전략적 축으로 선정, 이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이 분야에 총 2천8백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는 금년도 축산분야 지원규모 9천9백41억원중 30% 가까이 차지하는 규모이다.

### 한·미 쇠고기 협상 전격 합의, 3월말이면 국내상륙

한·미 양국간 쇠고기 수입 재개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인 결과 '30개월령 미만의 뼈를 제거한 쇠고기'만을 수입키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4월초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위에 올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는 9일부터 시작된 한·미간 쇠고기 협상에서 살고기만을 수입키로 타결했음을 지난 13일 밝히고,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수입위생 조건개정안 국내에

고 및 확정을 거쳐 미국내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승인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에 가능하며 그 시기는 오는 3월말경으로 예측했다. 농림부는 이처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한우산업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고 소비자들의 쇠고기 안전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 도입과 쇠고기 이력추적제 조기 확대 등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산지 소값 바닥세, 소비자가 상승세**

미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논의가 일기 시작한 시점부터 한우의 산지가 격하락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재개 소문이 업계에 돌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 지난해 11월에 열린 부산 APEC에서 한·미간 쇠고기 협상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으로 업계는 어수선했다. 그 이전인 2005년 9월 29일 기준 한우 산지가격은 ▲암송아지 357만원 ▲수송아지 255만원 ▲암소 500kg 479만원 ▲수소 500kg 450만원이었다. 대목인 추석명절을 지난 시점이었음에도 송아지와 큰소 모두 높은 가격을 유지했다. 그러나 올들어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발표한 지난 1월 13일 기준 산지가격을 살펴보면 ▼암송아지 262만원 ▼수송아지 208만원 ▼암소 500kg 463만원 ▼수소 500kg 359만원으로 나타나 지난해 9월과 비교해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암송아지의 가격으로, 지난 9월이후 불과 3개월 사이에 무려 1백만원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이다.

또한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 후 3일이 지난 16일의 소값도 소폭이기는 하지만 송아지나 큰소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입재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농가들이 송아지 생산에 흥미를 못 느끼고 암송아지 입식을 멀리 하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낙농진흥회, 올 유업체와 물량계약 난항**

낙농진흥회가 올해 유업체와의 물량계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생산기조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유업체가 계약을 희망하는 원유물량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진흥회가 유업체에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는 원유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계약을 마친 일부 업체들의 원유량은 1~2%가량 줄었으며 아직 계약을 마치지 못한 매일, 삼양, 비락, 임실치즈 등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원유계약량 삭감을 요구하는 등 전체적으로 12%의 물량 축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고 부담 때문이다.

진흥회 원유계약량 축소는 정부의 잉여원유부담 증가를 뜻하는 만큼 진흥회 물량 계약건이 향후 낙농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농림부, 올해 가축질병 검진 및 예찰 대폭 강화**

소부루세라병, BSE(광우병), 소백혈병 등 가축질병 검진·예찰이 올해 대폭 강화된다. 또 BSE검사시설 유지·보수비,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약, 랜더링처리시설 보강비용 등이 신규로 지원된다. 농림부의 2006년 가축방역 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르면 2005년과 비교해 가축질병 검진·예찰이 강화된다.

소부루세라병 검진은 2005년 35만건에서 올해 50만건으로 대폭 늘린다.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12개월 이상의 한우우 암소 및 농가에서 문전거래되는 한육우 암소 등 25만건과 MRT 및 방역본부에서 채혈해 검사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 발생 목장, 병성감정 의뢰된 소 등 25만건 등이다. 소 백혈병 예찰도 2005년 1만건에서 올해 1만5000건으로 늘리고 BSE도 3000건에서 5050건으로 늘린다. 올해 신규 지원사업으로는 BSE검사시설 유지·보수비 13개소 1억6900만원, 긴급방역 기동차량 18대, 2억1400만원이 지원된다. RT-PCR도 13대 3억900만원, 시험소 방역장비도 2억4800만원, 랜더링처리시설 보강비용도 4개소에 지원된다. 소 부루세라병 검진채혈비와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약도 지원된다.

(자료발췌 : 축산신문, 농축산신문)